

## 제11장 제2차 바벨론 포로 귀환자들의 족보

### 1. 개요

#### (1) 귀환 시기 - 주전 458년

제1차 귀환(주전 537년)으로부터 약 79년, 스룹바벨 성전 완공(주전 516년)으로부터는 약 58년이 지난 때이다.

#### (2) 귀환 계기 - 에스더 사건

주전 474년경(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에3:7) 바사의 대신 하만은 제국의 127개 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12월(아달월) 13일에 몰살하려는 악한 음모를 계획했다(에 3:7-15). 그러나 오히려 하만이 처형되고(에 7:9-10) 유대인들을 죽이려 한 자들이 모두 죽임을 당하였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여 매년 12월 14-15일을 부림절로 지키게 되었다(에 9:1-32).

하루에 온 유대인이 몰살당할뻔했다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섭리 가운데 기적적으로 구원 받은 이 사건은(에 3:7-15, 7:9-10), 제2차 바벨론 포로 귀환의 영적인 터전을 준비케 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의 결과였다.

#### (3) 귀환의 지도자 - 에스라(뜻: 주께서 도우심)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 제7년 1월 1일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받아 5월 1일에 예루살렘에 도착하였다.

(스 7:7-9) 아닥사스다 왕 칠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sup>8</sup>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칠년 오월이라 <sup>9</sup>정월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어 오월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 (4) 귀환의 가장 큰 목적 - 언약 공동체의 온전한 신앙 회복

주전 516년에 성전이 완공되었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말씀 중심의 신앙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더구나 많은 지도자가 이방 여인과 통혼을 하면서 세속화되어 갔다.

① 에스라는 귀환 시에 아닥사스다왕으로부터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게 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스 7:25-26) 에스라여 너는 네 손에 있는 네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네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로 유사와 재판관을 삼아 강 서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sup>26</sup>무릇 네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정배(定配)하거나 가산을 적몰(籍沒)<sup>복수</sup>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② 에스라는 예루살렘에 가서 율법을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스 7:10)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③ 에스라는 귀환 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이방 여자와 혼인한 사실을 알고, 그 죄를 걸머지고 자복하고 회개하며 기도했다.

이때 많은 백성이 심히 통곡하고 이방인 아내와 그 자녀들을 쫓아내기로 결단했다(스 9:1-15, 10:1-14).

(스 10:1) 에스라가 하나님의 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심히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 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스 10:3) 곧 내 주의 교훈을 좇으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의논을 좇아 이 모든 아내와 그 소생을 다 내어 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④ 10월 1일부터 1월 1일까지 3개월 동안 이스라엘 중에서 이방 여인을 취한 자들을 조사하여 그 명단을 빠짐없이 공개했다.

(스 10:16-17)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기 지명된 족장 몇 사람을 위임하고 시월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sup>17</sup>정월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취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대제사장 집안 중 5명(스 10:18), 제사장 집안 중 13명(스 10:20-22), 레위인 중 10명(스 10:23-24), 평민 중 86명(스 10:25-43)으로 총 114명이다. 제1차 귀환자 가운데 제사장의 비율은 약 10%였는데, 이방 여자와 통혼한 자 가운데 제사장의 비율은 약 16%나 되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 아내가 낳은 소생들까지 내쫓게 하심으로(스

10:44), 언약 신앙 공동체의 성결과 회복을 이루게 하셨다.

제1차 귀환 이후 어렵게 성전 건축을 마치고도 타락의 길을 걷고 있던 자기 백성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제2차 귀환과 함께 에스라를 통해 온 백성이 회개하고 각성하여 믿음의 순수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크신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

## 2. 귀환자의 수

제2차 귀환자는 총 1,775명(스 8:1-20)으로, 제1차 귀환자의 수(49,897명)에 비해서 너무나 적은 인원이다. 특히 성전에서 직무를 담당해야 할 레위인조차도, 대표자 세레바와 하사바와 그들과 함께한 38명만이 귀환하였다(스 8:18-19).

(1) 에스라 8장에 기록된 족보에서 귀환자의 수를 계산할 때 유의할 것은 에스라 8:18-19의 해석이다.

### 《 에스라 8:18의 해석 》

(스 8:18)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고 저희가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바와 그 아들들과 형제 십 팔 명과

여기 ‘한 명철한 사람’의 이름이 나오지 않고 바로 이어서 ‘세레바’가 나오는 것으로 보아, 문맥상 ‘한 명철한 사람’은 ‘세레바’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세레바’는 히브리어 ‘쉐레브야’(שֶׁרֵבְיָא)로 ‘여호와께서 열(熱)을 가져오셨다’라는 뜻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면 영적인 세계를 깨닫게 되고, 명철한 사람이 된다(참고-눅 24:32).

### 《 에스라 8:19의 해석 》

(스 8:19) 하사바와 므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 형제와 저의 아들들 이십명을 데려오고

원문은 ‘...와 함께’라는 의미를 가진 ‘에트’(עִתּ)를 각각 ‘하사바’와 ‘므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들)와 저의 아들들 이십 명’에 두 번 사용하고 있다.

즉, 이 문장은 ‘하사바’라는 개인과 ‘여사야와 그 형제들과 아들들을 포함한 이십 명’이 돌아왔다는 의미다.

(2) 제2차 바벨론 포로 귀환자를 각 대표자와 그들과 함께한 자들로 구분하여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 귀환자의 대표자는 제외하고 귀환한 자손의 수로 비교. 귀환자 수는 에스라 기준.

자손	대표자		함께한 자들		
총 지도자	에스라(1절)	1명			
비느하스 자손	게르숨(2절)	1명			
이다말 자손	다니엘(2절)	1명			
다윗 자손	핫두스(2절)	1명			
스가냐(바로스) 자손	스가랴(3절)	1명	150명	1,496명	
바함모압 자손	스라히야의 아들 엘여호에네(4절)	1명	200명		
스가냐 자손	야하시엘의 아들(5절)	1명	300명		
아딘 자손	요나단의 아들 에벳(6절)	1명	50명		
엘람 자손	아달리야의 아들 여사야(7절)	1명	70명		
스바다 자손	미가엘의 아들 스바다(8절)	1명	80명		
요압 자손	여히엘의 아들 오바다(9절)	1명	218명		
슬로밋 자손	요시바의 아들(10절)	1명	160명		
베배 자손	베배의 아들 스가랴(11절)	1명	28명		
아스갓 자손	학가단의 아들 요하난(12절)	1명	110명		
아도니감 자손	엘리벨렛, 여우엘, 스마야(13절)	3명	60명		
비그왜 자손	우대와 사붓(14절)	2명	70명		
레위인(제사장)	명철한 세레바(18절)	1명	18명		38명
	하사바(19절)	1명	20명		
수종자들	느디님 사람(20절)	-	220명		
합 계		총 1,775명			

### 3. 제2차 바벨론 포로 귀환자 족보의 특징

(1) 제1차 귀환자에 비하여 그 수가 훨씬 적다.

제1차로 귀환한 사람은 총 49,897명이다(스 2:64-65). 그러나 제2차 귀환자는 1,775명(스 8:1-20)으로 훨씬 적었는데, 제1차 귀환자의 수의 3.6% 정도 밖에 되지 않았다.

이렇게 수가 적은 것은, 제3차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주전 586년으로부터 128년이 지

났고, 제1차 귀환이 있었던 주전 537년으로부터 79년이 지났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태어나 고향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었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반드시 예루살렘에 돌아가야 한다는 간절함이나 언약 성취를 사모하는 신앙이 사라져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제2차 귀환자 가계별 12개 자손(스 8:3-14) 가운데, 9개 자손이 제1차 귀환자와 겹친다. 이는 제1차 귀환으로부터 79년이 지났어도 신앙이 전수되는 집안이 있었으며, 이들을 중심으로 제2차 귀환이 이루어졌음을 알려준다.

## **(2) 처음 귀환자를 모을 때 레위 자손이 한 명도 없었다.**

(스 8:15)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삼일 동안 장막에 유하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하나도 없는지라

이에 에스라는 족장들 9명과 명철한 사람 2명을 불러서 가시바 지방의 족장인 잇도에게 보내어, 성전에서 수종들 레위인들을 모으게 했다(스 8:16-17). 그 결과 총 38명의 레위인들이 모집되었다.

(스 8:18-19)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고 저희가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바와 그 아들들과 형제 십 팔명과 <sup>19</sup>하사바와 므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 형제와 저의 아들들 이십명을 데려오고

바벨론 현지에 오랫동안 정착하여 생활해 온 사람들이 떠나면 길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는 매우 어려웠을 것이다. 마지막 때도 세상 바벨론에 취하여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기가 어려워진다.

(계 18:4)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 **(3) 말씀에 익숙하고 능통한 에스라가 지도자가 되었다.**

제2차 귀환자들은 모두가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들이다. 이들이 자기가 태어난 삶의 터전을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강한 신앙적 결단 없이는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이들에게는 '에스라'라는 위대한 지도자가 있었다.

### **① 에스라는 말씀에 익숙했다.**

(스 7:6)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저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사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으므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더니

여기 ‘익숙한’은 히브리어 ‘마히르’(מָהִיר)로 ‘숙련된, 능통한’이라는 뜻이다. 또한, 에스라는 마치 ‘걸어다니는 성경(walking Bible)’ 같은 존재였다.

(스 7:12)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한 학사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여기 ‘완전한’을 표준새번역에서는 ‘통달한’으로 번역하였다. ‘통달(通達)’은 어떤 일에 대하여 ‘익히 알고 있어 막힘이 없는’이라는 뜻이다. 한마디로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하여 막힘이 없었다.

## ② 에스라는 말씀을 가르치는 학사였다.

성경에서는 에스라를 ‘학사’라고 말씀하고 있다(스 7:11, 12, 21).

(스 7:6) ...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사로서 ...

‘학사’는 ‘기록하다’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사파르’(סָפַר)의 분사형이 명사처럼 쓰인 ‘소페르’(סֹפֵר)다. 학사는 본래 율법을 필사하는 일을 하였으나 바벨론 포로기를 거치면서 그 역할이 확대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자가 되었다(스 7:10). 이렇게 말씀을 연구하고 잘 가르치는 참된 지도자가 있을 때, 신앙이 후대에 잘 전수된다. 바벨론에서 태어난 2세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학사 에스라가 있었다.

## 제 12장 제3차 바벨론 포로 귀환자들의 족보와 결언

바벨론 포로 귀환은 주전 537년, 458년, 444년의 세 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졌다. 느헤미야는 제3차 바벨론 포로 귀환의 지도자로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뒤 개혁 조치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개혁과 관련하여 몇 가지 명단(족보)을 기록하였다. 이 명단은 제1차 귀환자 족보와 연관하여 지속적인 성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제3차 바벨론 포로 귀환자들의 족보는 다음 네 가지 명단으로 구성된다.

① 언약에 인을 친 자들의 명단 (느 10:1-27)	②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들의 명단 (느 11:3-24)	③ 예루살렘 외곽의 주요 거주지 명단 (느 11:25-36)	④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명단 (느 12:1-26)
----------------------------------	-----------------------------------	--------------------------------------	--------------------------------

### 1. 언약에 인을 친 자들의 명단(느 10:1-27)

#### (1) 언약에 인을 친 제사장들(느 10:2-8)

느 10:1에는 제3차 귀환 후 언약에 인을 친 자 중, 정치적인 지도자였던 느헤미야와 시드기야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2-8절에서 언약에 인을 친 제사장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다. 이 이름은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가문의 이름들이다.

제3차 귀환(주전 444년) 후 언약에 인을 친 제사장 21명의 이름들을 제1차 포로 귀환(주전 537년) 후 제사장 명단에 기록된 22명(느 12:1-7)과 비교해보면, 그중 16개 가문이 제1차 귀환자 명단에도 나오는 것으로 보인다.

※ 제1차 포로 귀환 후 제사장 명단과 제3차 포로 귀환 후 제사장 명단의 비교

#### ① 이름이 일치하는 경우: 9개 가문

제1차 느 12:1-7	스라야	예레미야	아마랴	말룩	핫두스	므레못	아비야	미야민	스마야
제3차 느 10:2-8	스라야	예레미야	아마랴	말룩	핫두스	므레못	아비야	미야민	스마야

#### ② 이름이 비슷한 경우: 4개 가문

제1차 느 12:1-7	스가냐	긴느도이	마아다	빌가
제3차 느 10:2-8	스바냐	긴느돈	마아시아	빌개
비고	유사한 철자	같은 단어의 다른 형태	유사한 철자	모음의 차이

느헤미야 12:1-7 제1차 포로 귀환 후 제사장 명단(22명)		느헤미야 10:2-8 제3차 포로 귀환 후 인을 친 제사장 명단(21명)	
1절	①스라야 ②예레미야 ③에스라	2절	①스라야 ②아사랴 ③예레미야
2절	④아마랴 ⑤말룩 ⑥핫두스	3절	④바스홀 ⑤아마랴 ⑥말기야
3절	⑦스가냐 ⑧르흠 ⑨므레못	4절	⑦핫두스 ⑧스바냐 ⑨말룩
4절	⑩잇도 ⑪긴느도이 ⑫아비아	5절	⑩하림 ⑪므레못 ⑫오바다
5절	⑬미야민 ⑭마아다 ⑮빌가	6절	⑬다니엘 ⑭긴느돈 ⑮바룩
6절	⑯스마야 ⑰요야립 ⑱여다야	7절	⑯므술람 ⑰아비아 ⑱미야민
7절	⑲살루 ⑳아묵 ㉑힐기야 ㉒여다야	8절	⑲마아시아 ㉑빌개 ㉒스마야
*히브리어 접속사 '베'(ו)로 구별			
느헤미야는 제1차 포로 귀환 후 제사장 명단을 정리하면서 제3차 포로 귀환 후에까지 이어지는 16개 가문과 그렇지 않은 가문을 구분하였음			

③ 이름이 전혀 다르지만 관련이 있는 경우 : 3개 가문

제1차 느 12:1-7	에스라(עֶזְרָה) 뜻-여호와께서 도우신다	르흠(רְחֹם) 뜻-자비로운	잇도(עֵדוּא) 뜻-그의 증거
제3차 느 10:2-8	아사랴(עֶזְרָה) 뜻-여호와께서 도우신다	하림(חַרְמִים) 뜻-헌신된	바스홀, 말기야, 오바다, 다니엘, 바룩, 므술람 중 하나
비교	모음의 차이 느 12:13 '에스라'를 '아사랴'로 기록	느 12:15 '르흠'을 '하림'으로 기록	느 12:1-7 전반부 16명은 모두 언약에 인친 가문

(2) 언약에 인을 친 레위인들

(느 10:9-13) 또 레위 사람 곧 아사냐의 아들 ①예수아, 헤나닷의 자손 중 ②빈누이, ③갓미엘과 <sup>10</sup> 그 형제 ④스바냐, ⑤호디아, ⑥그리다, ⑦블라야, ⑧하난, <sup>11</sup> ⑨미가, ⑩르흠, ⑪하사바, <sup>12</sup> ⑫삭굴, ⑬세레바, ⑭스바냐, <sup>13</sup> ⑮호디아, ⑯바니, ⑰브니누요

(3) 언약에 인을 친 백성의 두목들

(느 10:14-27) 또 백성의 두목들 곧 ①바로스, ②바함모압, ③엘람, ④삿두, ⑤바니, <sup>15</sup>⑥분니, ⑦아스갓, ⑧베배, <sup>16</sup>⑨아도니야, ⑩비그왜, ⑪아딘, <sup>17</sup>⑫아델, ⑬히스기야, ⑭앗술, <sup>18</sup> ⑮호디아, ⑯하숨, ⑰베새, <sup>19</sup>⑱하림, ⑲아나돗, ⑳노배, <sup>20</sup> ㉑막비아스, ㉒므술람, ㉓헤실, <sup>21</sup> ㉔므세사벨, ㉕사독, ㉖얏두아, <sup>22</sup>㉗블라다, ㉘하난, ㉙아나야, <sup>23</sup>㉚호세아, 1㉛하나냐, ㉜앗습, <sup>24</sup> ㉝할르헤스, ㉞빌하, ㉟소백, <sup>25</sup>㊱르흠, ㊲하삽나, ㊳마아세야, <sup>26</sup> ㊴아히야, ㊵하난, ㊶아난, <sup>27</sup> ㊷말룩, ㊸하림, ㊹바아나이였느니라

여기 총 44개 가문 중, 14개 가문(바로스, 바함모압, 엘람, 삿두, 바니, 브배, 아스갓,

아도니감, 비그왜, 아딘, 아델, 베새, 요라, 하숨)은 제1차 바벨론 포로 귀환자 명단에도 포함되어 있다(스 2:3-19, 느 7:8-22). 14개 가문의 이름이 대부분 앞부분에 배치된 것을 볼 때, 이들은 언약을 갱신하고 인치는 일에 앞장서서 헌신한 자들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 2.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들의 명단(느 11:3-24)

언약에 인을 친 뒤, 느헤미야 11장에서는 재건된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로 선발된 명단을 기록하고 있다. 예루살렘에 거주할 자들은 정치, 사회, 경제적인 이유가 아니라, 철저하게 구속사와 언약적 관점에서 선별되었다. 이는 다른 성읍과 달리, 예루살렘을 가리켜 ‘그 거룩한 성’(עִיר הַקֹּדֶשׁ, ‘이르 하코데쉬)이라고 표현하는 데에서도 잘 나타난다.

(느 11:1) 백성의 두목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십분의 일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와서 거하게 하고 그 구분은 다른 성읍에 거하게 하였으며

< 제비뽑기와 자원을 통해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들 >

유다 베레스	지파 자손	베냐민 자손	제사장	레위인	문지기	느디님 사람들	노래하는 자들/브다히야 가문
468명		928명	1,192명 대제사장 스라야 가문 822 + 아다야 가문 242 + 아맛새 가문 128	284명	172명	계수 X	계수 X

## 3. 예루살렘 외곽의 주요 거주지 명단(느 11:25-36)

예루살렘 기준으로 남쪽에는 유다, 북쪽에는 베냐민이 거주하는 것은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한 뒤 두 지파에게 나누어준 기업과 일치한다. 느헤미야는 대부분의 지명을 가나안 정복 당시의 지명으로 사용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귀환이 제2의 가나안 정복이라는 구속사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1) 예루살렘 남쪽 지역에 거주한 유다 자손들(느 11:25-30)

(느 11:25-30) 향리와 들로 말하면 유다 자손의 터리는 ①기랏 아바와 그 촌과 ②디분과 그 촌과 ③여갑스엘과 그 동네에 거하며<sup>26</sup> 또 ④예수아와 ⑤몰라다와 ⑥벵벨렛과<sup>27</sup> ⑦하살수알과 ⑧브엘세바와 그 촌에 거하며<sup>28</sup> 또 ⑨시글락과 ⑩므고나와 그 촌에 거하며<sup>29</sup> 또 ⑪에느림몬과 ⑫소라와 ⑬야르뭇에 거하며<sup>30</sup> 또 ⑭사노아와 ⑮아둘람과 그 동네와 ⑯

라기스와 그 들과 ⑰아세가와 그 촌에 거하였으니 저희는 브엘세바에서부터 힌놈의 골짜기까지 장막을 쳤으며

(2) 예루살렘 북쪽 지역에 거주한 베냐민 자손들(느 11:31-36)

(느 11:31-36) 또 베냐민 자손은 ①게바에서부터 ②믹마스 ③아야와 ④벧엘과 그 촌에 거하며 <sup>32</sup>⑤아나돗과 ⑥놉과 ⑦아나냐와 <sup>33</sup>⑧하솔과 ⑨라마와 ⑩깃다임과 <sup>34</sup>⑪하딧과 ⑫스보임과 ⑬느발랏과 <sup>35</sup>⑭로드와 ⑮오노와 ⑯공장 골짜기에 거하였으며 <sup>36</sup>유다에 있던 레위 사람의 어떤 반열은 베냐민과 합하였느니라



느헤미야 11:36은 레위 지파가 예루살렘이나 유다 지파 땅에만 살지 않고 다른 지파 지역에도 살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옛날 여호수아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각 지역을 분배받아 거주할 때 레위인들이 전국의 48개 성읍에 흩어져 신앙을 지도 했던(수 21:1-42) 언약 공동체의 모습이, 비록 완전한 형태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회복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 4.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명단(느 12:1-26)

느헤미야 12장에는 제1차로 귀환한 제사장들의 명단(느 12:1-7)과 레위인들의 명단(느 12:8-9)을 기록한 후, 그 시대를 대표하는 24대 대제사장 예수아부터 29대 대제사장 앗두아까지의 족보를 기록하였다(느 12:10-11). 그리고 예수아 다음 대제사장인 요아김 시대의 제사장 족장들의 명단(느 12:12-21)과, 그 후시대의 레위 사람 족장들의 명단(느 12:22-26)을 기록하였다. 정리하자면, 느헤미야 12장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명단을 대제사장을 기준으로 삼아 시대별로 추적하고 있다.

느헤미야 12:10				느헤미야 12:11	
2 4 대 대제사장	2 5 대 대제사장	2 6 대 대제사장	2 7 대 대제사장	28대 대제사장	29대 대제사장
제1차 귀환 후 1대	제1차 귀환 후 2대	제1차 귀환 후 3대			
예수아 (여호수아)	요아김	엘리아십	요아다	요나단(요하난) *악한 대제사장	앗두아 *악한 대제사장
B.C. 515-490	B.C. 490-470	B.C. 470-433	B.C. 433-410	B.C. 410-371	B.C. 371-320
느 12:1-9	느 12:12-21	느 12:22-26*			

(느 12:22-26) 엘리아십과 요아다와 요하난과 앗두아 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이 모두 책에 기록되었고 바사 왕 다리오 때에 제사장도 책에 기록되었고 <sup>23</sup>레위 자손의 족장들은 엘리아십의 아들 요하난 때까지 역대지략에 기록되었으며 ... <sup>26</sup>이상 모든 사람은 요사닥의 손자 예수아의 아들 요아김과 방백 느헤미야와 제사장 겹 서기관 에스라 때에 있었느니라

느헤미야 12장의 족보가 29대 대제사장 앗두아(주전 371-320년) 시대까지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6절에서는 마치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의 인물들인 것처럼 기록하였다. 이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가문을 성별시켜 회복하여 다윗이 세운 24반열을 회복하려는 노력이 지속되었음을 보여준다.

## 결론: 생명책으로 완성되는 성별된 족보

제1, 2, 3차에 걸친 바벨론 포로 귀환 가운데 성전과 신앙 개혁, 성벽 재건까지의 모든 역사가 마무리 되고 거룩한 성이 완성되었다. 그 당시 여러 귀환자 자손들의 헌신과 신앙 전수의 자세, 범죄와 회개 등 많은 이야기가 에스라, 느헤미야의 족보를 통해 압축되어 있다.

오늘날 영, 혼, 육의 완전 회복을 향해 성취되어가는 구속사의 역사에서도 성도의 모든 헌신들이 생명책에 있다(말 3:16).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예정하셔서 생명책에 적어주신 우리의 이름을 흐리지 아니하고 아낌없는 헌신으로 나아가는 가운데, 마침내 생명책 완성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

(말 3:16) 그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빌 4:3) 또 참으로 나와 명어를 같이 한 자,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위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